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대학평의위원회	개최일시	2021. 03. 18.(목) 17:00~18:30
		장 소	공학관 이노카페
안 건	1. 2021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임원(의장, 부의장) 선출 2. 기타사항		
참석자수 (인원 수)	○ 의원(11명): 김경민, 하상안, 이동윤, 노영욱, 강창우, 소영수, 하배진, 류인준, 김륜희, 이강산, 최석문 ○ 간사(1명): 김대식		
결석자수 (인원 수)			
회의내용 및 결과	<p>1.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위원장 개회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 전, 총장이 2021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이 이어짐. - 2021학년도 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대학평의위원회 주관부서장인 기획조정처장(최승복)이 참석하여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을 소개하고 의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함. - 기획조정처장이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p>2. 안건</p> <p style="margin-left: 20px;">가. 2021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임원(의장, 부의장) 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의장을 선출하고자 함. - 기획조정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후보 추천을 의원들에게 요청함. - 이동윤 의원과 강창우 의원이 김경민 의원을 추천함. - 의원 전원이 김경민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동의함. - 기획조정처장은 김경민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함. - 의장은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장 후보 추천을 의원들에게 요청함. - 김경민 의원이 직원대표인 강창우 의원을 추천함. - 의원 전원이 강창우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하는 것에 동의함. - 의장은 강창우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함. - 의장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간사)에 따라 기획평가팀장을 간사로 추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동의함. 		

김 경 민	강 창 우	이강산
-------	-------	-----

3. 기타사항

- 금일 회의는 의장, 부의장 선출 및 의원 소개를 위한 2021학년도 대학평의원회의 정기회의이며, 규정 개정(안)의 심의는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함.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2022, 2023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 등의 사전 공지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차기 회의를 3. 24.(수) 17시에 개최하기로 함.
- 기타사항으로 의장은 회의장 밖에서 음악전공, 무용전공의 폐과철회를 요구하는 있는 교수 및 학생대표를 회의장으로 입장하도록 하여 해당 의견을 청취하자고 요청하고 의원들 간 상호 논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함.
 -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무용전공 소속 교수 및 학생대표는 대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 2023학년도 대학 편제 개편(안)에 대해 음악전공, 무용전공의 폐과 진행절차와 기준에서 많은 부당함이 있음을 준비해온 자료(별첨)를 바탕으로 설명함.
 - 의장은 학칙 개정(안)이 심의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개최 전, 학과의 자구노력과 발전계획 등 추가적인 정량자료를 폐과철회에 대한 근거자료로 구비하여 대학본부에 의견 개진 및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참석 교수 및 학생대표에게 권고하며, 대학 편제 개편은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부연함.
- 의장은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함.
- 의원들 간 논의 끝에 김경민 의장, 강창우 부의장, 이강산 의원을 추천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함.
- 의장은 간서명 대표자로 김경민 의장, 강창우 부의장, 이강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함.

4.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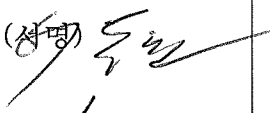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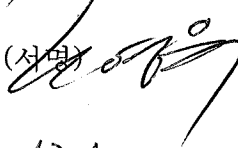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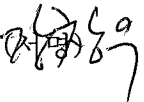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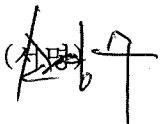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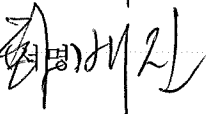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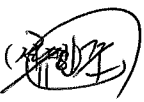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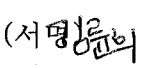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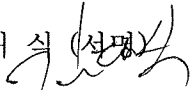


- 의장은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함.

특이사항

김 경 민

강 창 우

이강산

확 인 자	○ 참석자 : 김 경 민 (서명) 	작성 일	2021. 03. 18.(목)
	○ 참석자 : 하 상 안 (서명) 		
	○ 참석자 : 이 동 윤 (서명) 		
	○ 참석자 : 노 영 욱 (서명) 		
	○ 참석자 : 강 창 우 (서명) 		
	○ 참석자 : 소 영 수 (서명) 		
	○ 참석자 : 하 배 진 (서명) 		
	○ 참석자 : 류 인 준 (서명) 		
	○ 참석자 : 김 룬 희 (서명) 	작성자	김 대 식 (서명) 
	○ 참석자 : 이 강 산 (서명) 		
	○ 참석자 : 최 석 문 (서명) 		

※ 별첨

편제 개편을 위한 의견서

K-Pop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적 인기가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로 현재 그 위상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10대와 20대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점점 K-Pop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 4년제 대학에서 실용음악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동아대, 동의대이고 K-Pop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K-Pop음악전공
(보컬, 댄스, 싱어송라이터)

1. 타대학 유사학과 운영 현황(입시경쟁률)

(예시 동아대)

2021년도 동아대 실용음악전공 수시경쟁률		
보컬	17명 모집에 56명 지원	17.43:1
실용 작곡	7명 모집에 122명 지원	7.76:1
연주	3명 모집에 23명 지원	3.29:1

2021년도 동아대 실용음악전공 정시경쟁률		
보컬	8명 모집에 23명 지원	19.67:1
실용 작곡	3명 모집에 59명 지원	4.00:1
연주	2명 모집에 8명 지원	2.88:1

(예시 한양대)

2021년도 한양대 실용음악전공 수시경쟁률		
보컬	4명 모집에 1790명 지원	447.5:1
실용 작곡	3명 모집에 258명 지원	86:1
연주	15명 모집에 657명 지원	58.33:1

2. 신입생 모집(충원) 계획

1. 부산, 경남에서 실용음악 전공이 주를 이루는 브니엘 예술고, 창원예술고, 경남고성 음악고와 MOU를 맺어 신입생을 유치한다.
2. 부산의 실용음악학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K-Pop아이돌을 많이 배출한 <부산뮤직>실용음악학원과 MOU를 맺어 신입생을 유치한다.
(현재, 부산뮤직 실용음악 학원은 수영(본점), 동래, 덕천, 대신, 정관, 창원, 울산, 진주 등의 8개 분점을 운영하고 있다.)
3. K-Pop 경연대회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학과를 홍보하고 신입생을 유치한다.
4. 부산과 경남지역 200여개의 실용음악학원을 중심으로 학과를 홍보하고 신입생을 유치한다.

3. 기타 학과 개편의 필요성

1.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은 K-Pop전공과 만학도까지 포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전공을 개설하고자 한다.
2. K-Pop학과는 보컬 중심이고 기존 음악과의 기자재 활용이 가능하다.

2021학년도 수시·정시 등록률

연번	학과명	개편 학과명	수시·정시 등록률	최종등록률
1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66.7%	66.7%
2	행정학과	행정공무원학과	63.3%	63.3%
3	공무원법학과	폐과	63.3%	73.3%
4	국제관계학과	폐과	13.3%	33.3%
5	중국어중국학과	폐과	32.5%	70%
6	무역물류학과	폐과	40%	67.5%
7	글로벌경제학과	폐과	41.9%	96.8%
8	경영학부	경영학과	50%	79.3%
9	회계세무학과	경영학과	54.5%	86.4%
10	산업실문영어과	폐과	33.3%	40%
11	바이오식품공학과	외식조리학전공	40%	80%
12	생명과학과	반려동물학과	45.1%	61.3%
13	건축학부	건축학과	51.8%	80.2%
14	화학공학과	소방안전학과	20%	70%
15	에너지 환경·화학과	소방안전학과	30%	50%
16	신소재공학부	항공부품소재공학과	20%	31.7%
17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학과	60%	65%
18	지능형자동차공학부	자동차기계공학과	33.8%	38.8%
19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46%	53%
20	스마트전지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31.6%	32.9%
21	융합기계공학부	항공융합기계공학과	29.1%	68.4%
22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전공	폐과	60%	120%
23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전공	폐과	45%	75%



국제신문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 051500-5114

뷰경경 최고신문 kookje.co.kr

(38판) 제20770호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지역대 구조조정 신호탄... 신라대 음악·무용 폐과

뉴스분석 학령인구 감소 후폭풍
사립대 다수 정원미달 사태
신라대, 신입생 15% 감축
지원율 낮은 학과 통합합 등
이달내 교육부에 전형 제출

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합 방안을 제하고, 오는 22일 교무회의서 최종 결정한다. 음악전공은 2019학년도까지는 정원 30명을 모두 모집했으나, 지난해 등록률이 76.67%, 올해는 60%에 그쳤다. 무용전공도 지난해 95% 등록률에 사용해 45%를 과다모집했다.

신라대 무용·음악학과가 폐과 신호를 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약 내내 불린 사립대의 대학들의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라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2021학년도보다 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밝혔다. 2183명인 정원엔 1830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신라대는 지난해 수사·정시모집에서 정원 외 발생해 추가모집을 진행했지만 정원의 79.8%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미충원 인원 440명은 지역 15개 대학 증가 정 많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올해 신입생 정원율에 70%에 미치지 못하는 학과·학과를 통합합하기로 했다. 전체 62개 모집단위 중 10개가 대상이다. 신라대 집행부 기획부총장은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는 법학사범대학에서 조차 수급이

다수인 지역 사립대도 타인기 학과를 앞세워거나 학과 간 통합,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학은 학부 단위의 신입생 모집을 2023학년도부터 학과 단위로 바꾼다. 입학처 관계자는 "법경찰행정학부를 법학과 경찰학과 행정학과 등 3개로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율이 저조한 학과는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다른 학과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인사전형 계획 제출 시점이 이달 말에서 상반기 중순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사립대 대학이 이달 내로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전략을 확정짓는 전망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이 200명이었다면, 2년 뒤인 2023학년도에는 기존 정원보다 2년 전 미충원 인원 200명을 더해서 받아야 해 충원을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백신 유급 휴가제 추진

정 총리 "안심하고 접종 참여"
관계부처에 제도화 검토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코로나 백신 유급 휴가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조속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을 반응으로 얻으나 통증 등 고통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총리는 수도권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하는데 이어 17일엔 비수도의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을 걱정할 정도로 여러 지표가 좋지 않다"며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 정부부처는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해 방역 사각지대에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교 유급휴가 가는 대신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유급의료제에 대비를 할 수 있다"며 "집행명령제에 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15일(현지시간)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AZ 백신 접종 이후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라 18일 발표된 유럽의약품청(EMA)의 관련 추가 조사 결과와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마리엘라 시마오 WHO 사무부총장은 AZ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 "예방적 조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논란이 없는) 백신은 유럽에서 생산된 것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이 아니라면 접종 유망이 아닌 나라들에 발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신 기자**
▶관련 기사 8면

부산 남은 무용과 1곳 "실용만 좇으면 순수학문 누가 지키나"

뉴스분석 신라대 폐과 파장
지역 첫 무용과로 출근들 키워
대학 재정악화 첫 희생양 풀이
동문 반발·철회 요구 내용 증명
학문의 다양성 훼손 우려 높아

신라대가 창조공연예술학부(음악·무용 전공)를 사실상 폐과하기로 결정한(국제신문 17일 1면 보도)하면서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무용학과는 1곳 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인문·예술 분야 등 순수학문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학문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지역 대학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신라대(가) 창조공연예술학부 폐과를 결정하면 지역에서는 부산대 무용학과(한국무용·현대무용·현대전공)만 남는다. 무용학과는 10여 년 전만 해도 4개 대학에 있었다. 이들 대학은 해마다 대학무용제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해왔다.
하지만 정원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1년 무용학과를 개설한 경성대 무용학과는 2017년 폐과



신라대 문관에서 창조공연예술학부 음악·무용전공 학생들이 17일 폐과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신라대 창조공연예술학부 재학생

했다. 1983년 설립된 동아대 무용학과도 2011년 이후 신입생 수원이 끊어졌다. 신라대 무용학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개설해 상징성이 크다. 1970년 부산 여대(신라대 전신) 체육학과 내 무용 전공을 시작으로 1979년 1월 지역 4년제에서 처음으로 독립 무용학과를 개설했다. 1995년 '프랑스무용단'을 만들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김희영 무용가 등이 신라대 출신이다. 동아대 출신인 박연정 무용가는 "조남은 소리, 영남은 춤이 강하다는 평가는 예술계에서 오래 있었다. 부산은 특히 한국무용으로 유명했

고, 무용계의 큰 어른도 4개 대학에서 많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동문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신라대 무용과 출신인 부산시예총 집행부 이사장은 "충동만으로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공연예술학부 재학 중인 학생은 지난 15일 '폐과 철회 요구' 제목의 내용증명을 학교에 보냈고, 이날부터 폐과 철회의 파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영 어려움에 처한 대학은 취업과 직결되지 못하는 학과부터 폐쇄를 들어내고 있다. 이때

에 정부가 학문의 다양성 유지를 위해 인문·예술학과 보호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문·예술 관련 학과는 지역에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산대 박은희(무용학과) 교수는 "모든 대학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컴퓨터 전문기반 만들어 내고 있다. 미래 기술을 접목시킬 인문·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대학의 역할이 한 지 못한 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고집했다."

오늘날

자치분권 2.0시대 비전 모색 순회토론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대통령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기자장신문원은 새로운 자치분권방안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하고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 초청인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과 협망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 ▶일시: 2021년 3월 25일 오후 2시(서울)·6월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7개 지역은 사도초점 소재지)
- ▶서울 순회토론회 프로그램

- △기대원제 I: 김승은 대통령속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관련방안의 성과와 의미"
- △토론회 II: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삼지대학교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
- △자정 토론: 최경 소총장 대통령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분권발전위원장(한국대학교수)
- △김우영 서울시정무부시장(전 청와대재정차비차비서관)
-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충청남도)
- △조선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충신대 교수)
-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 △원승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자기한국행정학회)
- ▶행사문의처: 자치분권위원회의 기획단(02)2100-2249
- ▶대한민기자장신문회의의 사무국(033)280-9009

대통령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기자장신문회의의 국제신문